

『京畿道邑誌』 해설

제 二 책

一. 『加平郡邑誌』(奎一七三七三)

별도의 목차는 없으나, 方面、建置沿革、鎭管、戶總(경자식)、結總、還總、軍總、官衙、名山、大川、津渡、嶺陁、堤堰、名賢墓所、書院、勝地、寺刹、祈雨壇、場市、店幕、土産、孝烈、戰陣遺址로 구성되어 있다. 유일하게 戶總에 「경자식」이라는 간지가 들어있는데, 이 해는 一八四〇년(헌종六)이다. 一八四二-一八四三년에 만들어진 『京畿誌』의 「加平郡邑誌」와 비교해 볼 때 일부 結總 還餉 항목에 간지가 빠진 것, 읍지도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읍지이다.

二. 『加平郡邑誌成冊』(奎一〇七二九)

內部の 訓令에 따라 一八九九년 五月 加平郡에서 작성해 올린 읍지. 一책은 읍지, 二책은 읍지도이며, 각각의 말미에는 加平郡수 趙準熙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 읍지는 方面 戶總、還總、結總、名山、大川、津渡、嶺陁、堤堰、名賢墓所、寺刹、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京畿誌』의 「加平郡邑誌」나 위 『加平郡邑誌』(奎一七三七三)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약간 소략한 편이다. 一八九八년의 戶總 수치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게 편찬 당시의 사정이 반영된 부분이다. 二책의 읍지도 역시 『京畿

誌』의 「加平郡邑誌」 지도와 유사하나 일부 지명이 생략되어 있다.

三. 『高陽郡輿地勝覽』(奎一〇七〇九)

高陽郡輿地勝覽이라는 內題가 붙어 있다. 疆界、建置沿革、郡名、姓氏、山川、烽燧、宮室、客館、驛院、官舍、學校、佛宇、祠廟、陵園、塚墓、人物、孝烈、堤堰、官員、戶額、財穀、官屬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읍지는 읍지도가 맨 끝에 첨부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一八七一년에 편찬된 『京畿邑誌』의 「고양군읍지」와 다만 財穀 항목에서 一〇〇석의 사창곡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일부 항목의 세부적인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 점 정도가 다를 뿐이다.

四. 『高陽郡邑誌』(奎一七三五九)

四界、建置沿革、名山、大川、土産、烽燧、客館、學校、驛院、橋梁、佛宇、祠廟、陵墓、戰陣遺址、古跡、堤堰、戶額、(田案)、兵案、還穀、孝烈、事蹟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고양군에서 통용되던 별도의 읍지가 있었던 듯, 孝烈 항목에는 新增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事蹟 항목이 비교적 자세한데, 權慄의 勝捷碑文과 陰記 등이 실려 있다. 읍지도가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一八四二—一八四三年에 만들어진 『京畿誌』의 「高陽郡邑誌」와 동일하다.

五. 『高陽郡誌』(奎一〇七〇六)

고양군수로 재직중이던 李錫禧가 七五五(영조 三)에 만든 읍지. 『輿地圖書』에 고양군읍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一八세기 중반의 군현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읍지라 할 수 있다. 서문에 따르면 鄭逵의 『咸州志』를 기준으로 하되 孝烈、旌美、名賢、塚墓 등과 景勝地를 노래한 근래의 名文 등을 상세히 수록하려 했다 하며, 실제 본문에서도 그러한 면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읍지는 疆界、建置沿革、郡名、官員、姓氏、館宇、學校祠壇、坊名、民戶、田案、倉穀、軍額、烽燧、驛傳、吏案、各司奴婢 등으로 이루어진 전반부와 面別로 세분된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분류의 형식은 이시기 다른 읍지에서 흔히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각 면별로는 里名、山川、古跡、堤堰橋梁、寺刹、人物、孝烈、塚墓、陵墓、學宮、土產 등과 각각에 대한 사례, 명문장 등이 상세히 파악되어 있다.

六. 『果川郡邑誌』(奎一〇七〇八)

첫머리의 읍지도 뒤로 四界、郡名、建置沿革、屬縣、鎭管、官員、坊曲、姓氏、風俗、形勝、山川、島嶼、土產、城郭、關防、烽燧、宮室、樓亭、學校、驛院、橋梁、堤堰、佛宇、祠廟、陵寢、墓所、古蹟、名宦、人物、題詠 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군현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보여주는 항목은 제외되어 있다. 『京畿邑誌』의 「과천읍지」(一八七一년)에 실린 읍지 부분(읍사례 제외)과 동일하다.

七. 『喬桐郡邑誌』(古九一五·一一一—G九九九g)

一八九九년 五月 高陽군에서 작성해 올린 읍지. 一八九四—一八九五년에 만들어진 『畿甸邑誌』의 「고동읍

지」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읍사례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첫머리의 읍지도나 항목의 배치는 동일하지만, 建置沿革, 戶口, 人摠, 田賦, 軍額, 俸廩, 宦蹟, 科擧, 人物 등의 항목에서 一八九四년 이후 一八九九년 현재의 변화상이 파악되어 있다. 일례로 俸廩 항목에 따르면 관수미 四〇〇석과 아록 공수위전 四〇석이 지급되던 봉름은 갑오개혁의 결과 七〇〇원을 一二달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다 하며 一八九六년부터 시행되었다 한다. 읍지도 다음 면으로는 강화 소속 煤音島와 교동 소속 松家島 사이의 分界圖가 첨부되어 있다.

八. 『交河郡邑誌』(奎一〇七二七)

一八九九년 五月 교하군에서 작성해 올린 읍지. 一八七一年에 만들어진 『京畿邑誌』의 「교하읍지」와 동일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항목의 구성 자체는 근본적으로 『輿地圖書』체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一八九九년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한편, 수전 항목의 수치가 새롭게 파악되어 있고, 進供, 糶糴, 大同, 均役, 軍兵 항목에서는 폐지 사실이 표시되어 있으며, 俸廩 항목에서는 갑오개혁 이후의 새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 교하군수 朴周憲의 이름과 도장이 있다.

九. 『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奎一〇七〇七)

一八九九년 五月 교하군에서 작성해 올린 읍지. 『京畿誌』나 『京畿邑誌』에 실린 「김포읍지」와 동일한 항목과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輿地圖書』체제와 동일하다. 다만 進供, 糶糴, 大同, 均役, 軍兵 등 구래의 세입항목이 갑오개혁이후 폐지된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첫머리에 읍지도가 있고 말미에는 김포군수 張允煥의 이름과 도장이 있다.

○. 『南陽郡邑誌』(奎一〇七〇五)

一八四二—一八四三년에 작성된 『京畿誌』의 「남양읍지」와 동일한 읍지이다. 다만 『京畿誌』本の 科擧 항목에서 마지막으로 수록된 襄榮成이 이 읍지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京畿誌』本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전반부에는 읍지도를 포함하여 『輿地圖書』체제와 유사한 항목들이 실려 있고, 후반부에는 宦蹟、科擧、人物、題詠、碑板 항목이 실려 있는데, 후반부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 『南陽府邑誌』(古九一五·一一一—N一五二b)

一八九〇년대 초의 남양부 사정을 보여주는 읍지. 읍지도 뒤로 시작되는 본문에는 「南陽都護府使兼經理廳前營將」이라는 內題가 붙어 있다. 근본적으로는 『輿地圖書』의 항목 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內題에 보이는 복설된 經理廳의 명칭、軍錢、親軍營稅 항목 등은 이 읍지에 一八九〇년대 초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麻田郡邑誌』(古九一五·一一一—M二八九g)

一八九九년 마전부에서 올린 읍지. 客舍 항목에서 接界 항목까지의 전반부와 結摠 이하의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京畿邑誌』의 「마전읍지」와 동일한 형식이다. 그러나 結摠、戶摠、戶布錢、還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후반부의 내용은 읍지 편찬 당시의 세부적인 내역이 파악되어 있다. 말미에 마전군수 鄭旼永의 이름과 도장이 있다.

一三. 『麻田郡邑誌』(奎一七三七四)

邑治、坊里、鎭管、邑古號、津渡、公廨、倉庫、鄉校、壇院、戶惣、結惣、軍惣、名山、堤堰、名賢墓所、祠宇、亭觀、寺刹、祈雨祭壇、場市店幕、忠臣、孝子、烈女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매우 소략하다. 戶惣은 一八四〇년의 통계, 結惣은 一八四一年의 통계가 사용되었다. 컷머리에 읍지도가 없는 것을 빼면 『京畿誌』의 「마전읍지」와 동일하다.

一四. 『富平郡邑誌』(奎一〇七一五)

一八九九년에 부평군에서 올린 읍지. 컷머리의 읍지도에서 기호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四界 항목에서 堤堰 항목에 이르는 전반부와, 田賦 이하의 후반부로 구별되는데, 후반부에는 읍지 편찬 시기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田賦는 결당 三〇냥의 결과로 계산되고 있으며, 海稅와 鹽稅, 社還米에 대한 세부규정, 四等郡으로서의 지방관원의 숫자와 월름 총액 등이 수록되어 있다.

一五. 『富平府邑誌』(古九一五·一一一 B八八九b)

연대미상의 부평부읍지. 읍지도 뒤로 邑號、四界、建置沿革、鎭管、官員、姓氏、風俗、山川、島嶼、土産、烽燧、學校、官舍、驛院、橋梁、堤堰、佛宇、祠廟、塚墓、古蹟、名宦、人物 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古蹟、名宦、人物 항목이 상대적으로 자세한 편이다.

一六. 『朔寧郡邑誌』(奎一〇七一八)

一九세기 후반의 삭녕군읍지. 읍지도 뒤로 『여지도서』 체제와 유사한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田畾、田稅、大同、均稅、俸廩 등의 항목은 一九八四년 갑오개혁기 지방재정 이전의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糶糴 항목에 있는 社還米의 존재로 보아 一九세기 후반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一七. 『京畿道始興郡邑誌』(奎一〇七一)

一八九九년에 삭녕군에서 올린 읍지. 인물 항목에 「今上庚子」라는 표현으로 볼 때 순조대에 만들어진 읍지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京畿誌』나 『京畿邑誌』의 「삭령읍지」와 유사한 항목과 내용들이다. 그러나 田畾結의 수치가 새로 조사되어 있으며, 進供 軍摠의 폐지사실이 실려 있고, 사환미의 존재가 확인되는 등 읍지 작성시기의 사정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一八. 『始興郡邑誌』(상백古九一五·一一一 S i 二八)

一八九九년 이후에 합철된 시흥과 용인의 읍지. 震檀學會의 도서가 보인다.

① 「光武三年十一月日始興郡邑誌」…一八九九년 一一월에 작성된 시흥읍지. 같은 해 五월에 작성된 『京畿道始興郡邑誌地圖』(奎一〇七一)와 항목 구성과 순서에 차이가 있으나, 結摠、戶口、社還米의 수치 등은 동일하다. 인물조가 비교적 상세하며, 말미에 선생안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② 「龍仁縣誌」…『輿地圖書』와 동일한 항목과 편차로 되어 있으나, 군현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보여주

는 人戶、糶糶、田稅 등의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인물 항목에서 英廟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때 이후에 『輿地圖書』 형식에 맞추어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一九. 『安山郡邑誌』(古九一五·一一一 An八一g)

一八九九년에 작성된 안산군 읍지. 『輿地圖書』와 동일한 항목과 편차로 되어 있으나 읍지도가 없다. 進供、糶糶、大同、田稅、俸廩 등의 항목에서 갑오개혁 직전의 구래가 파악되어 있으나 갑오개혁때 폐지되었다는 표시가 붙어 있다. 一八九八년의 통계인 畵田、水田 수치, 면별로 파악된 호구수는 읍지 작성 시점의 사정을 보여준다. 말미에 안산군수 南啓述의 이름이 있다.

二〇. 『安山郡邑誌』(古九一五·一一一 An八一s)

고종대에 만들어진 안산읍지. 민호수가 면별로 파악되어 있고 結摠이 누락되어 있으며, 전반부보다는 인물 항목 이하의 후반부가 상대적으로 상세하다. 『경기지』(一八四二—一八四三년)의 「안산읍지」가 거의 그대로 전채되었으며, 다만 인물조의 효자 등이 일부 증보되었을 뿐이다.

二一. 『安城郡邑誌』(奎一〇七二六)

一八九九년에 안성군에서 만들어 올린 읍지. 一책은 읍지도, 二책은 읍지로 되어 있으며, 『輿地圖書』와 유사한 항목이지만 편차가 뒤섞여 있다. 戶口、田賦、軍額、社還米 항목은 구래의 사례와 폐지 사실

을 적는 형식이 아니라 편찬 당시 새롭게 파악된 내용이 적혀 있다.

二二。『安城郡邑誌』(奎一七三六九)

연대미상의 안성읍지。『輿地圖書』의 항목과 편차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경기지』(一八四二—一八四三년)의 「안성읍지」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다만 『경기지』본의 인물 항목에 신증되어 있는 내용이 읍지에서 빠져 있는데, 이는 이 읍지가 『경기지』본의 초본이거나 초본의 모사본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경기지』본 자체가 편찬 시기의 사정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 읍지의 편찬 연대나 반영된 시기적 사정을 짐작하기 어렵다。

二三。『楊根郡邑誌輿地圖成冊』(奎一〇七二八)

一八九九년에 양근군에서 편찬해 올린 읍지。 지방제도 개혁 이후의 읍지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첫머리의 읍지도를 포함하여 『경기지』(一八四二—一八四三년)의 「양근읍지」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戶攄은 별도의 간지가 쓰여 있지 않으나 『경기지』본으로부터 一八四〇년의 통계수 치임을 알 수 있다。 말미에 편찬자인 군수 閔泳旻의 이름이 보인다。

二四。『楊城邑誌』(奎一〇七三二)

一八九九년에 양근군수 李觀九가 편찬해 올린 읍지。 첫머리의 읍지도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읍지의 편

차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一八七〇년대 이후 편찬 시기가까지의 사정이 「新增」이라는 표시 아래 비교적 상세히 파악되어 있다. 徭役、軍額 항목 등에서는 갑오개혁 이전의 구사례와 폐지사실을, 坊里 항목에서 면의 증치 사실을, 田賦 항목에서는 一八七二년의 改量 사실과 一八九四년의 實結數를, 倉庫 항목에서는 社倉의 설치와 폐지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二五. 『楊州郡邑誌』(奎一〇七三三)

정조때의 읍지를 토대로 一九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양주읍지. 읍지도를 포함하여 『여지도서』 유형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나, 편차는 같지 않다. 전체 항목 중에서 陵墓와 人物 항목이 가장 상세하다. 民戶、軍額、糶糴 등의 항목에 간지가 들어있지 않아서 이 읍지가 어느 시기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一八四二—一八四三年에 편찬된 『京畿誌』의 「양주읍지」와 거의 유사한데, 조적 항목에는 留庫分、盡分條、半分條 등의 수치가 상세히 파악되어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京畿誌』本역시 편찬 당시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人物 항목 申氏조에 보이는 「當字丁未」는 一七八七年(정조 一一)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이 읍지가 정조때 만들어진 저본을 활용한 것임을 짐작하게 해 준다.

二六. 『陽智郡邑誌』(奎一〇七三三)

一八九九年 양지군수 申容均이 만들어 올린 읍지. 이 때 만들어진 경기도내 다른 읍지들이 구래의 편차와 항목이 그대로 사용된 반면 이 읍지는 읍지도 뒤의 본문 형식에서부터 새로운 면이 보인다. 이 읍

지는 지방제도 및 지방재정 개혁의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事蹟에서 人口 항목, 구래의 전통적인 항목들인 風俗에서 仕宦까지, 그리고 말미의 生養안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특히 事蹟에서 人口 항목까지가 사료적 가치가 높은 부분이다. 事蹟 항목에는 一八九六년에 四등군으로 승격된 사실을 볼 수 있고, 官吏吏隸額數、結摠、軍政、還政에서는 편찬 당시의 군현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보여주는 새로운 내역과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二七. 『陽智縣邑誌』(古九一五·一二一 Y 一七 J)

一八九一년 양지현감 宋秉峻이 편찬한 양지읍지. 전통적인 항목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편차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준다. 一八七一년에 편찬된 『京畿邑誌』의 「양지읍지」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읍지에서는 갑오개혁기 이전 지방재정에서 환곡과 창고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환곡분급내역과 창고의 폐지사실만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을 뿐이다. 말미에 송병준의 서명이 있다.

二八. 『陽智縣邑誌』(奎一七三六五)

路程과 坊里에서 시작되어 還摠、戶摠、結摠、軍摠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소개되어 있으나 간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시점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단언하기 어렵다. 軍摠 뒤로 전통적인 항목들이 이어져 있으나 자세하지 못한 편이다. 一八四二—一八四三년에 편찬된 『京畿誌』의 「양지읍지」와 동일한 읍지이다.

二九. 『陽川郡邑誌』(古九一五・一一一 Y 一七 c)

一八九九년 양천군수 朴準禹가 만들어 올린 읍지도. 읍지도 뒤로 『경기지』(一八四二—一八四三年)의 「양천읍지」 등 구래의 읍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은 세분되거나 명칭이 바뀐 것도 있다. 建置沿革과 山川 항목등에는 편찬자 나름의 견해가 「按」이라는 표시 아래 기록되어 있다. 戶口 항목의 수치는 편찬 당대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지만, 還穀、稅額 항목의 수치는 편찬 시점에서 시행되지 않는 古例임이 표시되어 있을 뿐 당대의 구체적인 수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朴準禹 당대까지의 명단을 기록한 先생안이 있다.

三〇. 『陽川縣邑誌』(古九一五・一一一 Y 一七 h)

一八九一年에 편찬된 양천읍지. 읍지도 뒤로 전통적인 구래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古蹟、形勝、樓亭、題詠、人物、塚墳 항목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말미에는 先생안이 수록되어 있다. 『경기지』(一八四二—一八四三年)의 「양천읍지」가 그대로 전재된 것이지만, 民戶、軍額、結摠、還穀의 수치는 편찬 당대의 수치이다.

三一. 『陽川縣邑誌』(古九一五・一一一 Y 一七 c h)

「양천읍지」와 「용인읍지」가 합철된 책자이다.

① 「양천읍지」… 一八七〇년대 초에 편찬된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경기지』(一八四二—一八四三年)

의 「양천읍지」가 그대로 전제된 것이다. 다만 毅摠 항목이 맨 뒤로 나와 있고, 그 끝에 「今無」라는 표시가 추가되어 있으며, 邑事例秩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말미의 「行縣令洪」으로 표시된 인물은 洪祐龍인데, 그의 전임자인 金秀煥이 一八七一年에 수정 편찬한 「양천읍지」(『경기읍지』 수록본)는 참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용인읍지」… 첫머리에 읍지도가 없다는 점을 빼고는 『輿地圖書』의 「용인읍지」와 완벽하게 동일하다.

배 우 성 (청운대학교 교양과정부)

凡例

(一六)

- 一. 이 책은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京畿道 邑誌 중에서 『加平郡邑誌(奎一七三七三)』外 三〇종의 책을 四·六배판 크기로 영인한 것이다.
- 二. 원본에는 목차가 없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읍지의 각 항목별로 목차를 작성하여 앞부분에 수록하였다.
- 三. 邑誌에 실려 있는 지도들은 사진 촬영 후 단색 분해하여 판형에 맞게 축소하였다. 원본의 규격은 지도 하단에 표시하였다.
- 四. 『始興郡邑誌(상백古九一五·一一一S i 二八)』와 『陽川縣邑誌(古九一五·一一一Y 一七c h)』에는 龍仁 縣誌가 같이 채택되어 있어서 분리하지 않고 원본 체제 그대로 영인하였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 五. 표지의 書名은 규장각 소장의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集字하였다.
- 六. 편집 및 목차 작성은 奎章閣 特別研究員 吳尙學이 담당하였다.